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ISSN 2465-8707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vol.31 2017 4/4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2017

4/4호

vol.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사회적기업과 함께 한 10년
사회적기업의 오늘
사회적기업의 내일

th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 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www.socialenterprise.or.kr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 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기획 · 디자인
주식회사 지지씨에스

사진 · 취재
피정우 작가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7 10th 2017

CONTENTS

Ž%xÝ¸ RbÓ 70-

10 Years Together

TOGETHER

04 ÑÉ ï aÃC_ 2‘ä
05 Öýå ‡&‡••–ÉŽ_ ü
06 ƒ ± ÁÓÒÞ
07 ™ Øÿ ÀI¹Œä ±
08 &ä¯ Ï&ä¯ÄIÐ
09 b—K Ž%x 2‘äX?$X”š6
10 Ž%²: , ¹\èD ÑŽ%x 2‘ä
11 ®- ± , ÄÈP:
12 R™ Ó¯Þ ±
13 ab; ±'%Ž ªŽŽX

Social Enterprise Today

PRESENT

16 Ñ,d @ ‘EL™ C88 ß0î
18 Þa ÞØ— v ‘— Äî3 Eaî
19 A ‘ '(ÅD Ô·3 Eaî
20 Ç (JÀ í= ¨7“8 Eaî
21 ” Ž~áÀ² v°8 Eaî

Gallery

SE GALLERY

22 •±ì Ñ;‘ ¸ƒ

Social Enterprise Tomorrow

FUTURE

26 Ž%xÝ¸— Ý¸ $43D Ei
28 (Á…‡I™• @ Ž%xÝ¸D ¿b— ·ÐD ^N8 Ò;î
29 4,Ž%•ô$ % @ (5ý ‡7 Ž%x ¤ …3 9yÞî
30 C_ @ Ý¸ Ž%xÝ¸ 7a–> ã Þ× X?q
31 W20Ò @ Ž%xƒ•3 $ç .07& .07& .07&
32 (4 óÝ @ ³R> • aÃI :× n·à Áš E\Ý
33 -(yWh-(ß @ -JGF T (PPE XJUI -(40$*"- $"

OVER SEA

34 Ž%™• ç~À Ê éŠ a¶ Öýå Ý¸ Ž%•ô

Winter Special

2 ì ¸
36 I y n à á•8 Q×î @ 2Ÿ¯•á
37 ~5ý EX× y ØD @ L‰¸ Ž%²: Ã

SEASON GOODS

38 F TUPSF @ [illegible]
40 TUPSF@–ÑÀ Ö¯d Ž%xƒ•D " ¢ |

NEWS & Culture

42 NEWS
44 Q&A
46 CULTURE
48 BOOK

(y— Ì•5ý (— (¡ I Ž%xÝ¸D ™

사회적기업의 지난 10년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 시간이었다.
함께해서 따뜻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새기고
다가올 새 시대의 힘찬 발걸음을 준비하며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이뤄낸 2017년을 갈무리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한 10년

사회문제 해결사, 사회적기업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알리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0개 대표 사회적기업을 선발했다. 취약계층 고용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2017년 대표 사회적기업 10곳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함께 한 공익 캠페인 '사회적기업, 000을 부탁해'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었다. 또한 네티즌 4만 여명의 응원 속에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지원금이 주어졌다. 그럼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10개의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성과, 그리고 네티즌들의 열띤 응원 메시지를 소개한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지역활성화를 부탁해!

지역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이경수 이사장

전국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었는데, 10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진부한 표현이겠으나,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나눔과 연대 실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하 행복나눔)은 제주도 내 다양한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뜻을 모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2013년 3월 전국 최초의 마트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 4월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현재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나눔은 2개(노형점, 오라점)의 마트를 비롯해, 로컬푸드 한식뷔페 '섬채', 로컬푸드 레스토랑 '애월바베', 온오프라인 쇼핑몰 '베리제주', 독립편의점 '콘큡' 등을 아우르는 유통 및 요식프랜차이즈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마트하면 언뜻 비정규직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떠오르지만 행복나눔에서 일하는 53명의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전 직원 정규직 고용의 원칙과 더불어 이들이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철칙은 모든 매장 수익의 3분의 2를 제주도 내 여러 단체와 기관에 후원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 나눔과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행복나눔이 설립 이후 꾸준히 지켜온 미션이자 지향점이다.

'상생하는 지역 경제' 미션 클리어!

2018년은 어느새 사회적기업 인증 5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자, 자립의 기로에 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다. 사실 기업이 전 직원 정규직 고용이란 원칙을 지키며 성장하기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도전의 땀방울을 많이 흘릴수록 사회적경제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행복나눔은 지역 내 양질의 생산품 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유통망을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등 돌하르방 같은 뚝심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가고 있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âç >b AXÞÓ¿—×)@žD| Ñçÿ‘Ÿ‘Iî ‘äI v³çá Ññ|8 žD| IÄ× ¸™À x ç œý D Ž%xƒ• žD| } 8 E\¯ ŠW Þ× P &(Óî I Ž¸8 >ç ¢2"º ‚ñ"º C8˜ ÑÉŽ%ÝÈ Ä× X3 ³S ÞÝ $ç ¢ñÞŠ Sî –5ý ; Š E\¯> á I ;• FÑE PÊ8 rc$î× |À ý «7 |û3 ±Š 0î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응원합니다!

이성욱 제주도를 위해 애쓰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권혜영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가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이유나 니 이 집니다. 늘 원합니다.
이정호 로 푸드의 성공적인 장을 기원합니다!
최은주 행복함을 나누는 협동조합 원할게요. 화이 !!
민지현 지역 마트로서 더욱 발전하길~~
남정현 우리 사회를 이 게 하는 사회적기업 원합니다.
오주연 건강한 공동 만들기 지 니다!!
장희원 사회적기업, 지 처 모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김미경 으로 더 다양한 약과 화된 모 을 기대합니다.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윤리적소비를 부탁해!

글로벌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이강백 대표

이번 선정으로 포털 사이트에 우리의 활동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고,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이 댓글과 투표를 통해 보내주신 응원이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의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직한 생산자와 윤리적 소비자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이하 아공네)는 2012년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 저개발국의 소외된 생산자들과 거래하며 국내 최초로 캐슈넛, 계피, 카카오닙스, 건 망고, 건 파인애플을 선보이는 등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공정무역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꾸준한 거래를 추구한 것은 물론, 프리미엄급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가치나 제품의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일반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는 마진 등의 이유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캠페인 선정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고. 포털 사이트 노출을 통해 아공네를 몰랐던 대중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홈페이지 순 방문자가 20%가량이나 증가했으며, 선정 이후 소정의 사업 지원비로 신규 명절 선물세트 제작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 좋은 세상 위한 가치 있는 무역' 미션 클리어!

아공네의 2018년 목표는 도약이다. 질적 목표는 아공네가 대한민국의 공정무역 대명사가 되는 것. 그리고 양적 목표는 두 배의 성장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의 자립 기반을 완전히 갖추는 2018년, 이것이 바로 아공네의 각오이자 목표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무역, 가난한 생산자들의 존엄한 노동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전 지구적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무역의 새해가 벌써 밝아오고 있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ÉŽ_ üD ™8àCcý ¡Þv r$ÝØÀ² Ê|à Ý%sî¤'ÑD Ý1ø ý Kà bÝ@Dx Rºñ Ž x™À¯ð 8 {»ÑE %Žr x5ý (À Ä 8 Cq =I8 á û S»î C:5ý LÞ× oá\I J; jlî ˜à Ñd L ÿŸà Ï ; rnÄ±s ´Ö(âç IQ¯t ×ºà ¿— º Þaî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응원합니다!

배영수 글로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염다현 글로벌 공정무역이 이제 일반화되기를 응원합니다.
김예지 정당한 대가의 순환을 위해.. 파이 !!
임여정 공정무역으로 무역 정의 이 하길 바라요.
김성현 은 소비가 은 세상을 만드는 요. 원합니다.
박래일 윤리적 소비! 한 동참하면서 원합니다.
이수림 정직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대 는 사회를 바 니다.
김찬미 무 아요!! 계 도 캐 도 맛 니당~
한진호 아공네의 안심 거리, 모두 모두 즐기자 파이 !
최푸름 함께하는 가치를 실천해 주 서 감사합니다.

세진플러스, 환경문제를 부탁해!

ECO 환경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박준영 대표

세진플러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B2G 또는 B2B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온라인 홍보나 SNS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향후 사업계획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로 환경 플러스! 장애인 복지 에이플러스!!

세진플러스는 박준영 대표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세진이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박 대표는 기존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을 찾아갔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결국 자신의 전문경력을 살린 봉제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런데 봉제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게 됐고,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친환경 건축자재인 '플러스넬'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플러스넬은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장애인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효자 아이템이자, 폐섬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사업이었다. 플러스넬은 유연한 성질 때문에 건물 내장재로 사용할 경우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섬유 특유의 흡수성을 이용해 흡음재 등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 후 다시 녹여 재활용까지 가능하다. 세진플러스는 현재 기존 의류사업을 기반으로 플러스넬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봉제 회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회사로의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특히 온라인투표 홍보를 SK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가 맡아주면서 대학생들에게 회사와 플러스넬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플러스넬 상용화 통한 고용 확대' 미션 클리어!

세진플러스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KT Social Change Maker 부문 수상을 발판으로 2018년에는 더 많은 플러스넬 시범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스넬을 상용화하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또한 꾸준히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2년 이내에 신축 공장을 설립하고 장애인 100명을 고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âç× ÒÞ '8 R…Lî– ¯=I • d ,*45(6þÀ &ç ¸–Þ× Ž¸8 Óïîî ÒÞ 'D >–3 Œ‡±× "I || Ø¯a È8 Õ[î IÆÀ(Ž%xÝ¸ ÅÈ%5È üÄ XŽI &¹HWßcÌ š Ž%xÝ¸ ±™Ý›' Š ¢ 2 b™ ´98 ûšÞq :¯ D· S× àçÓî

세진플러스 응원합니다!

구세정 환경을 위한 뜨거운 노력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진경 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서비스를 응원해요.
정성규 은 일에 장서 주 서 상 감사합니다!
김준식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 니다!
장규호 세진플러스의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 되기를.
박인영 세진플러스의 날에 희망을 이합니다.
임명재 기물이 자원으로 되살아나다니 대단한 기업이네요.
고정은 환경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남기숙 참신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니다.
박수민 우리 사회 해결사 세진플러스. 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에이컴퍼니, 신진작가들을 부탁해!

문화예술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정지연 대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고,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멋진 계기가 됐습니다.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와 관객의 안목을 끌어올린 공정미술

에이컴퍼니는 아트큐레이팅 및 컨설팅 전문기업이자, 작가들의 작품 유통 활성화와 그들의 경제적, 정서적, 제도적 창작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신진 작가들과 관객이 전시회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브리즈 아트페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판매 작품 수 308점, 관객 수 8800명,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에이컴퍼니는 이번 캠페인 선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갤러리 겸 작가의 작업실, 카페로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를 미리 알아보고 방문한 손님들이 늘었다거나, 이전과는 다르게 작품을 꼼꼼히 살피며 구매 문의를 하는 손님들이 많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캠페인 진행 이후, SBS를 비롯한 방송사 3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등 대외적으로 에이컴퍼니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예술가의 능동적 수익 창출' 미션 클리어!

2017년 히트 프로그램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였다.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1로 매치한 후, 예술가가 소상공인의 점포를 아트마케팅해주고 수익을 얻게 하고자 기획한 프로젝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뉴딜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우수아트마케팅 사례로 미술 교과서에도 수록됐다. 에이컴퍼니는 이런 기세를 이어 2018년에도 양적, 질적 성장을 꿈꾼다. 그 꿈의 중심에는 한결같은 모토가 자리 잡고 있다. 더 많은 신진작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참 잘했어요 2017년 | âç× ² — ƒÝ(3 ‡ 0× Ž¸\8 >ç F7 X>3 EIî r‡_¬•K ‡_ƒÝsŽ¸5ý ƒÝ((ÓX >\8 Ê·î8 zE ‡äÄ Ry š%D ¿—3q"Š ¾x ™Qû h z _ Ý³ 8 ó¿îî ·ÿÝ&Žý²× y™¿8 Ž% xÝ¸5ý²× >–3 •Šd Þq ; à çÓî

에이컴퍼니 응원합니다!

하영은 예술을 좋아해서 더 관심이 가네요~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백진호 문화예술이야말로 직장인들의 휴식이고, 감성을 채워 니다.
이승연 예 가들이 현실을 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길 원합니다
박유은 예 가와 대중 사이의 다리.. 무 네요.
엄세리 신진 예 가들의 진정한 동반자. 미 시장 혁신을 기대합니다
장예찬 예 에 관심은 있으나 이 어려 사람으로서 원합니다.
홍정선 우리나라 문화예 계 사회적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주세요!
신기승 문화생 은 일상의 출과도 으니 언제나 발전을 원합니다
임명재 신진작가들의 창작환경 선에 힘쓰는 에이 니를 원해요~!
오예림 작가와 고객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위해 원합니다.

뉴시니어라이프, 위풍당당 시니어를 부탁해!

시니어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구하주 대표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서 시니어패션쇼의 가치를 공인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시니어패션쇼가 우리나라 고령사회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독보적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시니어 프레타포르테

뉴시니어라이프는 패션디자이너 40년 경력의 구하주 대표가 50대 이상 시니어들의 삶에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설립했다. 10년 전 시니어패션쇼 프로그램을 창안해 국내외에서 150여 회의 공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국 및 중동을 대상으로 한 '예비창조관광프로그램'으로 꼽히기도 했다. 일반적인 패션쇼의 주인공은 '옷'이지만, 시니어패션쇼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시니어모델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입고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을 때 삶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이 열정은 일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모델 워킹 훈련은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해 관절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 효과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기표현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나이 들수록 뒷짐지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뉴시니어라이프는 시니어들이 직접 체험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다.

'시니어 문화의 글로벌 확산' 미션 클리어!

뉴시니어라이프에게 2017년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만료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첫 해였다. 그러나 세계노년학회 초청공연과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공익 캠페인 선정 등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얻기도 했다. 2018년은 재정적 자립을 달성하는 원년이자 당당한 시니어 문화의 확산에 더욱 주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델 워킹 훈련을 평생교육으로 정착시키고 시니어 패션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한류 문화 선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새해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뉴시니어라이프에게 못다 한 꿈이란 없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Ñd žÐÆ& ÏÀ² Ì= Á…¢™ß% *"((ÐR8 É‡ zD &ä¯•Ìó •ËqI žÐÆ& ÏÌ -"À² Á0ù – À âËî I •ËÀ² à¹´ &ä¯D É2¿—y>™ D û¿8 Á… P´ LÈy™>ì Ñ2¨\Àq ,E¹I È ±»î ˜à •ËÀ 5>à ; % \(£¤ UÑ …á œ7 v°8 ƒ÷ÞŠ ,‡â û S»î

뉴시니어라이프 응원합니다!

원지현 많은 활동으로 건강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삼봉 당당한 모습 보기 좋아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박지혜 진 패션으로, 당당한 모 으로 세상에 나가게 해주시길 바 니다.
이현주 진 사회적기업을 원합니다. 더 창하고 사 으세요.
최은주 황 을 선사하는 시니어라이프를 원합니다!!!!
고수빈 도 노 당당한 시니어 모 한 해보고 싶네요~ 노년 !
이은수 어르신들에게 꿈과 열정을 알려준 시니어라이프를 원합니다~
양유진 100세 인생을 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장지혜 노년의 아름 고 열정적인 동이 정 집니다!!!
김새민 사회적기업의 모 사 가 되는 기업이 되 으면 니다.

드림위드앙상블, 장애인의 열정을 부탁해!

장애인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이옥주 이사장

우리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드림위드앙상블이 연주하는 Dreams come true

드림위드앙상블은 국내 최초 발달장애 클라리넷 앙상블로, 7명의 발달장애 단원들과 지도자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다. 단원 중 5명이 음악대학을 졸업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전문 연주자 양성 및 공연사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장애인에게는 도전의식과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동기 부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해 복지관,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의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캠페인 선정과 KBS 열린음악회 출연이 이어지면서 드림위드앙상블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한다. 사업제안을 위한 기관방문이나 외부기관의 공연 문의 시 대외적인 인지도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특히 공연 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단원들의 사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타파' 미션 클리어!

드림위드앙상블에게 2017년은 단원들의 연주력 향상, 연습실 환경 개선 및 공연 횟수 증가, 후원 유치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성장을 이룬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2017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철저히 2018년을 준비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능기부로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꿈의 무대 카네기홀에서 스티비 원더와 합동공연을 펼치는 그 날을 위해 오늘도 그들의 연주는 계속될 것이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X?$X"š68 î–C ç Êób—Ky™Ë±WÒ¸µ8 'ÒÞÝ $à ¢ñI ´r ÈÞ ñSÀ² ,•x5ý h7: Š Sî IÞà š7 X?$X"š6I E\¯ >Š S× Ž%x >–3 F7 Ý™À² •EÞŠ Sî× ÑÐIt ñ1 Ž%x5ý Û•xK ,— 3 IQ¯ r;Ä Ý ;î ˜à •Ë *û> y™ : ¡ Ð>îŠ •Ë Ry— 1 Ø ¡•À²(×ÝD ¿—> a lî

드림위드앙상블 응원합니다!

정진숙 아름다운 꿈들을 응원합니다~~!!
유순일 발달장애인들의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경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희수 늘 도와주고 싶 는데 이 게 직 실천하니 무 합니다.
전준호 상 을 이루 언제나 함께 하 니다.
심동수 발달장애인들이 쳐서 만 진 팀. 원해요.
김형준 드림위드 상 의 희망 시지를 열렬 원합니다~ 파이 !
권보민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특 더 애정이 가네요~ 상 파이 !!
박부석 힘내세요. 드림위드 상 은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단 !
박상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음직하게 만들고 이어나가 주세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따뜻한 돌봄을 부탁해!

돌봄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나준식 이사장

민들레의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일이라 무척 고맙고 흥분되었어요. 조합원들을 포함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독려하면서 우리 내부의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들레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서비스가 아닌 정을 주고받는 쌍방형 돌봄서비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은 대전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의료인과 협동해 운영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주민 자치 의료기관이다. 일반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이웃이 되어 자신의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직됐다. '의사' 중심의 기존 의료문화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자가 의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챙길 수 있는 신뢰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체조, 산행, 요가, 마라톤과 같은 건강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독거노인, 철거민, 노숙인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 시민 대상 거리검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왕진 서비스 등 사회공헌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들레는 1차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가정간호센터, 스포츠의학센터)과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심리상담센터)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민들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들레는 서로서로의 돌봄 속에서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공동체를 돌보라'라는 미션을 완수하고 있다.

'이웃 간의 상호돌봄체계 구축' 미션 클리어!

민들레의 2018년 목표는 과감한 실험이다. 그동안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하나하나 꺼내 실행에 옮기고 검증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건강 리더를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는 '작은단위건강공동체'를 세우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 복지 · 돌봄 통합시스템을 모델링해 나갈 생각이다. 나준식 이사장은 말한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꿈꾸고 도전하기를 멈출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

참 잘했어요 2017년 | ¹\èD :y— ·Ì8 d•@ÞŠ ÒÀn2 'ÒPž— ³' (8 Óïîî Ò~— W\8 $à x•Ó & .I ‰•x5ý < û S»8 zE ‡äÄ û™@ÑØ; xW³'3 SWý y Þ× ¿—3I î ±¹5ÈdJÐÓÃ 3 >ç²× ÑÉ±¹\ — ã Þ× ¢KdJ>ä, Ž¸8 z îî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응원합니다!

이채연 돈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조합의 공헌을 응원합니다.
김은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꾸준히 사랑받기를 응원할게요!
김소라 요한 돌봄을 가장 효 적이고 따뜻하게 실천하는 모 참 보기 좋네요.
이정숙 의료인과 환자가 하나 되는 모 , 보기 니다.
김선영 민들레 씨처 세상 리 나가길 기도합니다.
양보단 누구라도 돌봄 안에서 안하게 을 영위할 수 있도 해 주세요.
최선희 건강 공동 의 가치를 구현하는 민들레를 원합니다!
채영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조주형 더 은 관심과 사 는 사회적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권태홍 의료, 복지, 돌봄을 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민들레 파이 ~~~

유스바람개비, 청소년 진로교육을 부탁해!

교육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김정삼 대표

한국 사회적기업 10주년 역사 안에서 교육 분야 대표기업으로 선정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문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인지메이커로 육성하는 우리의 소셜미션이 널리 알려진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스바람개비가 일으킨 '소셜진로교육' 바람이 분다

유스바람개비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그런데 핵심은 '학교 밖'에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 이를테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회적기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름하여 '소셜진로교육'이 유스바람개비가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ㅋㅋ밥차', 커뮤니티 공간이자 카페 '소리울', 학습 및 진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바람개비스쿨'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운영했다. 올해는 특히 이들의 자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씽킹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단순 노동력만 사고파는 단기취업(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일터를 발굴하는 작업으로,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발굴해 청소년과 매칭하는 일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해 청소년 고용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가칭 '알바드림스쿨'에 대한 모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역량 UP' 미션 클리어!

유스바람개비는 소셜진로교육의 전국단위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알바드림스쿨'의 성공적인 정착 역시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청소년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를 2년간 주관하면서 만든 '청소년소셜벤처동아리'도 청소년들의 창의적 진로역량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유스바람개비의 2018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R×™Ž%xƒ• ®- À² rŽ%xÝ¸>•(8 Ó × Óý®-s8`ç ž & × y´ 28 FI Ÿ]î Ž %xƒ• JŽ¨¿—•8 ƒÝ ƒš(J (}R(aD ÑÉÀ² ÓïÞÝ(îî IÞà 2\8 >ç ÑÉŽ%®- ±SD ÉÝ J 3 Ñ Þ× R×™ ®- y™ Ž%xÝ¸D "dE8 Ká û S»î

유스바람개비 응원합니다!

조승연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응원합니다.
김연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어주는 유스바람개비의 활동이 보기 좋습니다.
김환희 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 수 있길!
조복희 현장에서 보고, 고, 만지는 경 을 통해 무한한 감동과 꿈을 얻습니다.
엄은진 오직 소년만을 위한 진로 육을 치는 사회적기업을 원합니다.
함종호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원하 , 발전을 바 니다.
윤혜선 아이들의 꿈을 우는 희망의 공간이 이 생 으면 합니다.
김규나 육으로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김영란 진정 아이들이 요로 일! 원하고 존경합니다.
김창지 사회적기업이 소년들을 지지하고 인도해주길 원합니다.

청년

셰어하우스 우주, 청년 주거문제를 부탁해!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김정현 대표

대한민국 대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사회적 미션과 가치를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우주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며 내실을 갖춰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주인, 셰어하우스로 지구에 정착하다

셰어하우스 우주(이하 우주)는 이름처럼 2035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청년 주거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우주가 셰어하우스 업계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비단 실속 있는 주거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이벤트, 여가와 레저 할인 서비스, 의식주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주인(거주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단순히 싼 집이 아닌, 양질의 문화와 폭넓은 교류가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집을 추구하면서 우주인들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 더불어 대기업과 손잡고 셰어하우스 건물을 기획, 개발, 시행하는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셰어하우스에 적합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내 ·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청년주거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우주는 이번 캠페인 선정과 그에 따른 홍보로 좀 더 넓은 층의 대중들에게 우주의 가치와 역할을 알릴 수 있었으며, 실제로 입주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셰어하우스 확장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미션 클리어!

우주에게 2017년은 다채로운 시도를 펼친 시기였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들을 마주하며 성장을 꿈꾸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존속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터. 2018년에는 우주 하우스 100호점을 공급하고, 직접 셰어하우스 형태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또 누구든지 집을 구할 때는 그 형태가 어떻든지 우주가 운영하는 집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회사의 영향력을 키울 생각이라고 한다. 우주의 꿈은 우주보다 넓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âç ±× $ Ñ|8 ÝÈ5ý ± Þ |8 ñç îÑvD ¢ñ8 çóî Ò~— 8 Ý|5ý ± Þ |éÑ ßÑÞ× a >b E2 Ø(ý Ñ|8 Øða@à çÓî Ò@D¢Þ 3 Ä 5ý î ÝxÞŠ Õœ7Ó¯Þ 3 bÞŠ W î5t Ý¸ yÈxK Ô r*8 d îÓ ™I»îŠ W£àî

셰어하우스 우주 응원합니다!

최문희 공유로 청년들의 주거해결이 되길 응원합니다.
박정숙 주거문화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시길..
고송령 년이야 로 이 나라의 미래 니다. 더 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시대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성장하길 바 니다. 파이 !
유희상 은이들을 원하는 마음으로 어하우스 우주를 원합니다!
김주미 주거 문제로 힘들 경 이 있기 때문에 공감가는 사업 니다.
김한나 년으로서 힘이 니다. 한 지지대 은 우주를 원합니다.
이세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사회적기업과 년들은 함께!
안미현 3포에서 다포로 이어지는 시대에 기 적이지만 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거주 문제를 위해 일하는 우주를 원합니다!
김정은 2030세대들에게 공유경제는 보 화되어 있는 합니다. 파이 !
김경예 년 주거문제 해결에 더 주 돌이 되어나가시길!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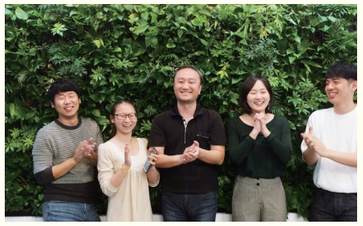
농사펀드,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해!

| 해결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 박종범 대표

농사펀드는 이번 10대 사회적기업 중 유일하게 비인증 기업인 소셜벤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해 인증이 아니라 인정을 받은 기분이 들어 정말 기뻤어요. 사회적 미션을 세우고 바르게 실행하면 되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농부와 소비자에게 최고의 건강수익률 안겨주는 '농사펀드'

농사펀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농부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소셜벤처다. 농부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 자금과 판로를 확보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투자한 농산물의 농사과정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제철 먹거리를 받아볼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므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셈이다. 일반적인 유통구조에서는 결국 농부도,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빚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니 빚을 갚기 위해 노심초사 최대한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다한 농약과 비료가 사용된다.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건강하지 않은 구조다. 농사펀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기획했고, 농부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좋아요. 회원가입하고 응원합니다." 캠페인 참여자의 응원 글이다. 박종범 대표는 이 글을 읽고 그렇게 흐뭇할 수 없었다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 미션 클리어!

2017년은 농사펀드가 여러 단체 및 대중에게 인정받은 해였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일을 할 때 큰 힘이 되는 법. 워낙 독특한 분야의 사업이라 녹록지 않지만 자신들을 믿는 농부와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향후 P2P 대출도 도입해 농민들의 금융, 복지, 교육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다는 농사펀드. 2018년의 풍년을 다짐하며 오늘도 상생의 씨앗을 뿌린다.

참 잘했어요 2017년 | âç ¡ zD œý ª 3 Ea üÄ XŽl Ðý,_3 Óïîî xq× ¡ E À² Fq× E éÑ Ô ªWØÀ à ª> ;3 ´Óî ˜ ² &ì •25ý R™ z8 rÑÉš¤ Àc sý -¿Þ× ÐýÒÔ8 ÔîŠ Ò¿—3K•É‡ r™ À(ª \D ‰•xK 2— R™ LW; 9y8 $à >– S× ÐýÒÔ8 ÑØá û Sq 9î

농사펀드 응원합니다!

이주해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파이팅
송정화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사펀드 응원합니다!!
유수진 안전한 거리 원해요.
이해영 건강한 거리를 위한 노력. 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세요!
채희정 업의 희망, 파이 !
서지원 상 고 고 있 니다. 수고하세요~~
진은정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 니다. 파이 !
강민지 안전한 밥상을 위해! 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는!
이정호 지 적으로 신나게 사를 지을 수 있길 바 니다~
조진형 도 이용해보고 싶네요. 이 알려지길 바 니다.

à´D Cv×vý× á û ¹× à´KD — øß ‘EL™ C8 Èï

낮에는 양지바르고 밤에는 달빛을 고루 받는 마을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달동네 산동네로 불렸던 곳
바로 그 마을이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모범적인 도시재생의 상징이자 마을기업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사진제공 부산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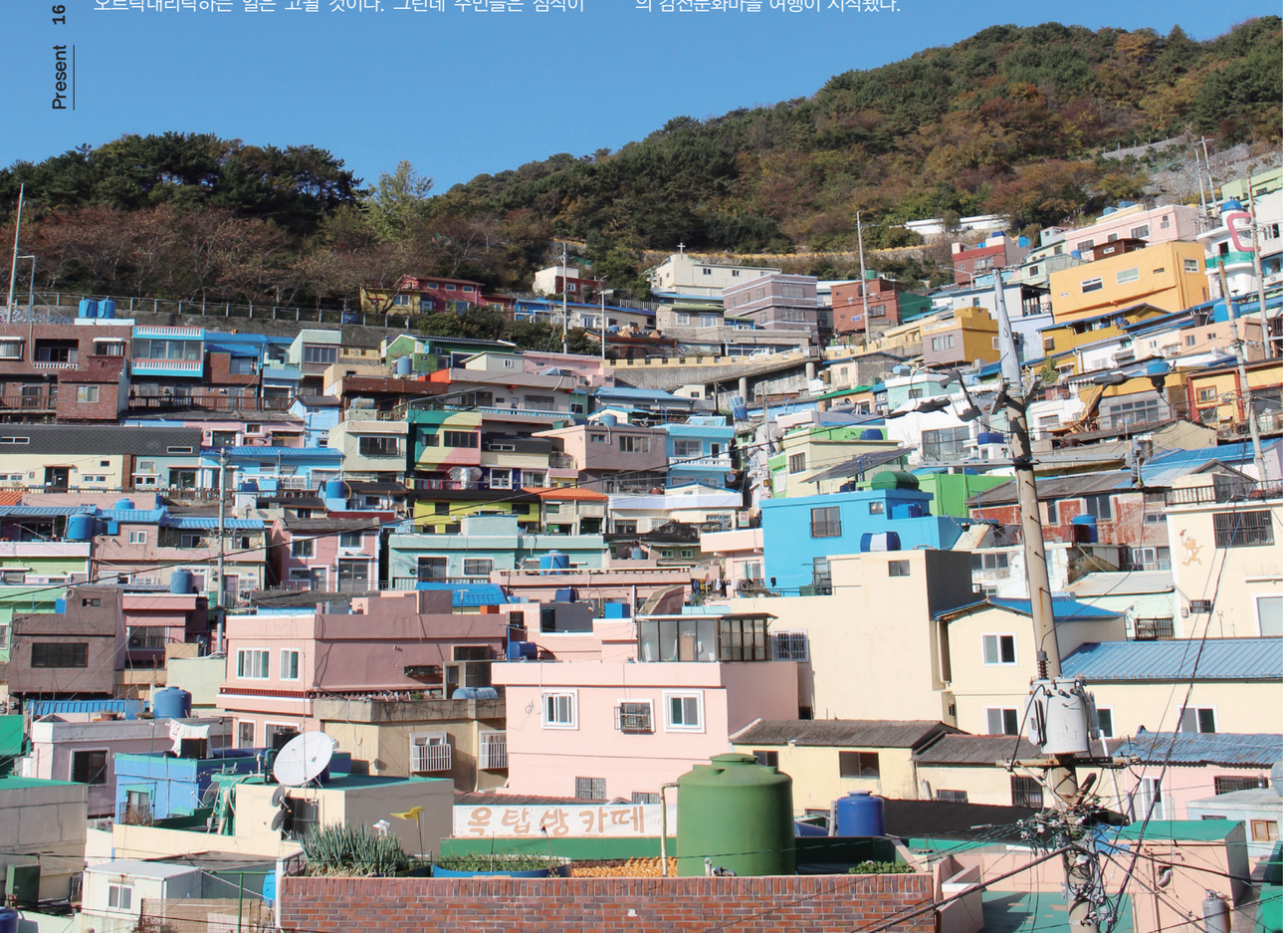
도시재생의 업타운, 부산감천문화마을을 오르다

지붕과 지붕 사이, 골목과 골목 사이에 피어나는 공존의 미학

따뜻한 인심의 감천문화마을, 방가방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옥녀봉과 천마산 사이 해발 약 300m의 고지대라 차를 타고도 한참을 올라와야 했다. 오르막길에 진입하기 전 토성역 번화가 주변은 주말이라 불야성이었지만, 마을은 한산했다. 거의 모든 집이 소등한 상태여서 기대했던 야경을 구경할 순 없었다. 다만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택시들의 전조등이 여기저기에서 번쩍거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택시를 자주 애용한다고 한다.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그만큼 마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은 고될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짐작이나 했을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랜 세월 드러나지 않았던 감천의 매력을 함께 공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감천문화마을이 운영하는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직원분은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게스트하우스는 2~6인실까지 총 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2인실의 경우 기본 4만 원, 추가 1인당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층까지 구비돼 있어 5명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다. 전기온돌을 켜니 방바닥은 금방 데워졌고, 웃풍은 온풍기로 잡을 수 있었다. 따뜻하고 아늑하게, 1박 2일간의 감천문화마을 여행이 시작됐다.



마을 운명 역전! 달동네에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게스트하우스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 특산품으로 만든 어묵탕에 주먹밥, 깍두기로 차려진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상. 그리고 식후 커피와 함께 감상하는 평화로운 마을 전경은 원 플러스 원이다. 부산의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전순선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님을 만나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37년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마을 발전을 처음부터 목격한 감천문화마을 변화의 산증인이다. 원래 마을은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던 태극도 신자들의 거처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신자들이 집단이주해 정착한 곳이라고 한다.

1955년 당시 비록 판자촌이었으나 거의 동일한 크기의 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집과 집들은 서로 통하게,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아 전망과 일조량을 공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되면서 감천문화마을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갖게 됐다. 만약 개개인들이 이곳에 정착했다면 절대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거다. 힘겨운 삶의 터전이었던 달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때는 2009년이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를 통해 정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 곳곳에 10점의 미술작품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미로미로(美路迷路) 프로젝트'로 골목 구석구석에 문화의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제 변화의 바람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2011년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2012년 감내카페 1호점을 개소하며 어엿한 마을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다. 때마침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마을기업들도 하나하나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감내맛집, 미니숍/아트숍, 공영주차장, 감내카페 2호점, 게스트하우스, 감천아지매밥집, 감내골행복발전소(소금공방) 등이 차례차례 들어섰고 마을 차원에서의 수익이 발생한다. 마을기업들은 2016년 15억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한다. 25명의 마을주민 정규직을 포함해 총 25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관광객 숫자는 더 대단하다. 2011년 2만 5천 명에서 지난해 185만 명, 올해는 무난히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5, 6천 명의 관광객 중 외국인이 40%를 차지한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관광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 2014년 12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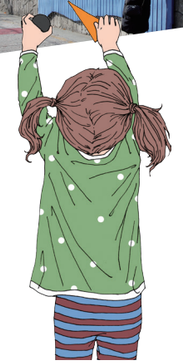
그곳에 가면 하늘과 땅, 산과 바다를 모두 만날 수 있다

하늘마루, 감내어울터,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점심시간쯤 되자 슬슬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바닷바람까지 세차게 불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삼삼오오 어울려 사진을 찍고 먹거리를 즐겼다. 바람 덕분인지 하늘이 유난히 파랑파랑했고, 알록달록 마을 지붕들과 멋진 조화를 이뤘다. 감천문화마을을 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일컫는지 알 수 있었다. 마을 투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스탬프 지도(2천 원)를 구입하는 게 좋다. 마을 소개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상세하게 표시돼 있는 지도를 보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노라면 마치 탐험가가 된 듯한 느낌이 난다. 게다가 스탬프를 찍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고 이 중 3곳에서는 엽서까지 받을 수 있다.

감천문화마을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전망이다. '하늘마루'는 마을협의회가 맨 처음 조성한 공간으로, 마을 전경은 물론 저 멀리 감천항과 부산항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마을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시한 안내관으로 구성돼 있다. 커뮤니티센터 '감내어울터'는 탄생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다. 동네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으로 목욕탕은 독특한 감각의 갤러리로 변신했고, 각층은 체험공방, 감내카페 2호점, 주민들을 위한 강좌교실, 1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옥상은 전망대로 쓰인다.

이곳 전망대는 하늘마루보다 바다 쪽 전망이 훨씬 좋다는 장점이 있다. 포토존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는 관광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스팟 중 하나다. 나인주 작가가 제작한 모형 어린왕자, 사막여우와 나란히 앉아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늘마루와 감내어울터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색다른 전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기를 증명하듯 언제나 기다란 줄이 서 있어 기본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인생샷을 얻을 수 있다.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두울

감천은 물만 달달한 게 아니다 부산 식도락의 백미!

감내카페, 감내맛집, 감천아지매밥집

감내(甘內)는 감천(甘川)의 옛 지명으로, 천(川)은 내를 한자로 적은 것이라 한다. 이곳의 물이 너무 달고 좋아서 선원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물을 받아갔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감내는 마을의 공동 브랜드이다. 마을기업들은 거의 모두 감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 '감내카페' 1호점은 빈집을 개조해 만든 곳으로, 마을이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마을기업 1호다.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초창기에 설치할 만큼 앞서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내카페에서는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황토가마소금을 판매한다. 황토가마소금은 전남 신안 천일염과 황토볼을 혼합해 구운 프리미엄 알칼리성 소금으로, 작년에만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마을의 효자상품으로 급성장했다. 식사와 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감내맛집'을 추천한다. 전통 비빔밥을 비롯한 식사와 분식을 판매하는 감내맛집 2층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최상의 전망을 선사한다.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와 부산의 특산품인 고래사어묵으로 입가심할 수도 있다. 감천문화마을 식도락의 백미는 단연 '감천아지매밥집'. 감천2동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동남아(동네에서 남아도는 아줌마들) 6명이 엄마손 협동조합 조직 후 만든 식당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엄마가 차려주시는 집밥과 같은 푸근함과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자갈치 새벽시장에서 직접 공수한 고등어를 식재료로 사용해 만든 고등어구이, 고등어찜, 고등어추어탕의 맛이 일품이다. 이곳은 윗마을에 비해 인적이 드문 아랫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분위기 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굵직한 지역환원사업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그간의 수익금으로 '감천의 물고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2천 마리의 목공예 물고기들을 예술가와 주민들,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작업해 마을 이곳저곳에 장식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무리 지어 다니는 형형색색의 나무 물고기들은 과거 힘겹게 살면서도 가족을 부양해낸 감천 어머니들의 상징이다.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행상을 하고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 남은 생선을 손질해 좁은 골목과 지붕 위에 말려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셨다고 한다. 감천의 물고기는 바닷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를 짠 내로 가득한 마을의 마스코트이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누구 겁니까?

희생과 협동으로 마을의 오늘을 만들어 낸 주민 모두의 것

감천문화마을의 성공 요인은 결국 공존이다.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전통과 현재의 공존. 그리고 원주민과 관광객의 공존. 공존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을은 현명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을 상권에 프랜차이즈 업체는 들어올 수 없고 3층 이상의 집도 지을 수 없다. 상가 문은 오후 6시에 정확히 닫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의 바람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다. 마을기업의 수익으로 집수리를 하고 인근 초등학교 급식비도 지원하는 등 지역환원사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전통의 보존에 바탕을 둔 발전과 도시재생이 화두인 요즘, 감천문화마을의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 더욱더 빛난다. 그러나 마을의 노인층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감천문화마을은 이미 26%에 도달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내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공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유입은 물론, 마을의 추가적인 도시재생 사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쓸쓸해지는 마을이 아닌 젊은 혈기가 밀물처럼 생동하는 마을, 감천문화마을의 진짜 도시재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어머! 여린 꼭 가야 해 셋

세다 세다 지쳤다...
그냥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포토존

등대 포토존, 바다 포토존 등

지구상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숫자의 포토존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천문화마을에는 정말이지 도처에 포토존들이 깔려 있다. 앞서 소개한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뿐만 아니라 등대 포토존, 바다 포토존 등도 시원한 전망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굳이 포토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마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다. 그림과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장식된 벽면, 곳곳에 세워진 예술조형물, 빈집을 개조한 예술가의 공간 등등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사한 포토존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 데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작품이 나온다. 감천문화마을은 인증샷의 시대에 최적화된 관광지라고 할까? 익살스런 포즈로 자신만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또 마을 초입에서 대여해주는 한복을 입고 V자를 그리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흐뭇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저마다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술작품인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런 장면이 좋은 관광지가 지닌 미덕이 아닐까.

어머! 여린 꼭 가야 해 넷

감춰진 골목길에서 추억을 만나다

감천의 주인공은 나야 나! 골목길

감천문화마을의 주인공이자 터줏대감은 골목길이다. 여기저기 두서없이 뻗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목적지가 있는 길.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디론가 통하는 신비한 미로. 마을의 진가는 골목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업지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주거공간에서 만나는 삶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 그동안 이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이 만나고 헤어지고 스쳐 지나갔을까? 도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좁은 골목길은 걷는 이를 묘한 노스탤지어로 안내한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골목길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마을의 명물 중 하나인 '별 보러 가는 계단'은 정말 별 보러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문득 뒤돌아보면 현기증으로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려 14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148계단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마을을 둘러보는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느긋하게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면 한나절이 금방 간다. 그러고 나서 어슴푸레 맞이하는 감천문화마을의 땅거미야말로 절경이다.

INTERVIEW

마날(Manal El Alami El Idrissi) 교환학생 / 모로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어디든 서울처럼 번화하고 높은 빌딩들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 감천문화마을은 저의 모국인 모로코와 여러모로 비슷하네요. 언덕 위에 작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라든지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닮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삶의 정취를 보니 고향이 몹시 그리워집니다.

레나(れな) & 레이미(れいみ) 학생 / 일본

엑소, 샤이니, 동방신기의 열렬한 팬이라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서울에는 한 번 가봤고, 부산은 이번이 처음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곳의 평가가 좋더라고요. 오는 길에 만원 버스를 탔는데 엄청 재미있었고, 마을 전체가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네요. 포토존도 굉장히 많아서 사진도 실컷 찍을 수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의 마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좁은 골목, 언덕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양동성(杨东升) 바리스타 / 중국

한국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온 김에 여행 가이드북을 통해 알게 된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네요. 이곳저곳에 새겨진 다채로운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 직업이 바리스타라서 각기 다른 개성의 카페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한국은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요. 어제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치킨을 먹었고, 오늘은 돈가스 맛집에 갈 생각입니다.

지춘근 회사원 / 경기도 안양

부산여행은 몇 번 와봤지만 이곳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능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추천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궁금했는데, 직접 와보니 일단 풍경이 참 멋집니다. 재미있는 포토존이 많아서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도 안성맞춤이군요. 관광지인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여서 놀랐습니다. 이 마을은 아무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걷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명물 씨앗호떡을 먹으면서 걸으면 더욱더 좋겠죠?

김현광 / 감천문화마을 경로회장

저는 보수동에서 이곳으로 이사와 60년 이상을 감천문화마을과 함께 한 원주민입니다. 이 마을에서 2남 2녀를 두고 모두 출가시켰으니 제게는 참 소중한 땅이자 제2의 고향인 셈이지요. 요 몇 년 사이 마을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빠른 변화는 벅차기도 하지만, 구경거리가 많아지고 마을에 활기가 생기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경로당이 지어져 노인들이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할 수 있으니 경로회장으로서 감계가 무량합니다. 마을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전순선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마을 관광 해설사

주민협의회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아랫마을을 젊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이 전망 좋은 윗마을을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식사하고 술 한잔할 수 있는 다운타운을 만드는 거죠. 이곳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상권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E Gallery

사진제공 | (주)제주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주)제주생태관광은 여행의 참 재미를 느끼면서도 환경과 사회를 위하는 착한 여행, 즉 여행지가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여행지 · 환경 · 여행자 모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추구하고 있다. 독특한 생태와 문화,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소명을 바탕으로 여행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마을주민 고용 및 마을 농산물과 체험상품 등을 연계하여 마을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지리산C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리산C협동조합은 지리산 둘레길과 자락의 마을, 주민들의 삶에서 가치를 찾는 문화예술 및 여행사업을 하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원을 활용한 생태 레저인 트리클라이밍, 카누잉, 산달리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리산C협동조합의 C는 콘텐츠(Contents), 커뮤니티(Community), 컬처(Culture), 쿱스(Coops), 그리고 지리산 City를 의미한다.

Ó•¿—
ÑØ>Þ¿ ø7 $43
Ž%xÝ¸D >–À
fP3 óî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생소했던 용어가
사회적경제 안으로 스며들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기업의 책임감을 넘어 상생의 동반자로
CSR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대기업 CSR의 만남
신세계아이앤씨 _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미래의 희망을 그리다
SK사회공헌위원회 _ 혁신으로 더 넓은 사회적 생태계를 창출하다
롯데마트 _ 대기업, 사회적기업, 꿈나무가 함께하는 드림팀
현대자동차그룹 _ 사회적경제를 위해 MOVE, MOVE, MOVE!
GS홈쇼핑 _ 구매가 곧 나눔이 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LG전자 · LG화학 _ Life's Good with LG SOCIAL CAMPUS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상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사회적기업과 대기업 CSR의 만남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경제 양극화 완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공식 선언한 자리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26일,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답이라도 하듯 훈훈한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2017 사회적기업-CSR 만남의 날' 행사였다.

'2017 사회적기업-CSR 만남의 날' 성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사회적기업-CSR 만남의 날'은 사회적기업과 대기업 간의 우수한 협력모델을 소개해 민간 자원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유입되도록 독려하고, CSR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장으로서 향후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던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설명과 소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진흥원이 기획한 협력프로그램이 이끌어낸 다채로운 사회적 효과들이 공개됐다. 즉, 2017년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이 사회적기업과 대기업 및 금융기관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 이와 함께 신세계아이앤씨, SK사회공헌위원회, 롯데마트, 현대자동차그룹, GS홈쇼핑, LG전자 · LG화학 등 6개 기업의 CSR 우수 사례 발표가 더해졌다.

함께해서 더욱 달콤한 협업의 열매

진흥원 이은수 차장은 전체 발표에서 사회적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유형을 9개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Award유형', '청년창업 지원유형', '유통채널 제공유형', '금융지원 · 투자유형',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유형',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유형' 등 9개 영역에서 대기업들은 활발히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진흥원은 올 한 해 무려 16개 기업과 2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차장은 "향후 사회적기업을 넘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업모델을 개발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대기업 CSR의 가장 이상적인 현 주소

올해는 9개의 협력모델 중 다음의 6개 영역이 더욱 활성화됐다.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신세계아이앤씨', 'Award유형-SK사회공헌위원회', '사회서비스 제공유형-롯데마트', '청년창업 지원유형-현대자동차그룹', '유통채널 제공유형-GS홈쇼핑', '금융지원 · 투자유형-LG전자 · LG화학' 등 각 영역에서 활약을 펼친 6개 대기업의 2017년 CSR 성과와 가치를 만남의 날 기업발표를 토대로 소개한다.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본 행사는 사회적기업과 대기업 및 금융기관 간의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는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협력모델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회사 中

이성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대기업은 지속 가능한 CSR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자원들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협력은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부 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축사 中

기업명	프로그램 및 성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재능기부 카페 사업 | 카페 사회적기업에 바리스타 교육 및 경영자문 등 지원(1억)
롯데마트	청년식당 창업 프로젝트 | 푸드코트 매장 무상지원, 인테리어 지원(0.5억) 재능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 |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아동 음악교육 및 대학 교육 지원(1.5억)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48억)
SK행복나눔재단	2017 행복 얼라이언스 |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결식아동문제를 해결(15억)
신세계I&C	영업관리 ERP프로그램 무료지원 | 유통분야 사회적기업에 전문 프로그램 무상지원(0.15억) IT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IT전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금 전달(0.4억)
현대백화점그룹	사회적기업 패셔니스타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에 자본,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성장지원(4.5억)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사회혁신 프로젝트 | R&D에 힘쓰는 사회적기업에 지원금 전달(1억) KB국민은행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기업과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0.5억)
KDB나눔재단	KDB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금 전달 및 멘토링(3억)
KT희망나눔재단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제안 공모전 | 소셜벤처와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지원금 전달(1.35억) KT Chamber Orchestra 사회적기업 무료 대여 | 장소 대여 및 스 , 음향 지원 확정 IT, 아동교육 서비스 기업 육성사업 | 진행예정(0.7억)
CJ주식회사	자존감 증진을 위한 영화 · 영상제작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강사 양성 |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아동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0.6억)
한국IBM	창업팀, 사회적기업 대상 IT교육 운영 |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에 IT 활용 비즈니스 교육 실시
GS홈쇼핑	영상, 미디어 사업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진행예정(2억)
우리은행	17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및 우수창업팀 멘토링 지원, 사회적기업 리더 육성(3.8억)
LG전자 · LG화학	LG소셜캠 스 지원사업 금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성장 지원(연간 20억) 소셜벤처 경진대회 상금 지원 예정(0.1억)
현대자동차그룹	-온드림 오 션 신 MOU 및 차기 5년 사업 진행 의 중(연간 20억)

사회적기업 성장을 돕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미래의 희망을 그리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진정성 있게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의 사회공헌 활동은 3가지 테마로 나뉜다. '희망을 키우다, 그리다, 나누다'. '키우다'는 미래 IT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나누다'는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그리다'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름은 Mini, 지원효과는 Max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세계아이앤씨의 첫 번째 사업은 2015년 시작한 'Mini Contest'였다. 소셜벤처의 성장지원금을 위한 콘테스트로, 타이틀의 '미니'는 사회적기업에게 지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적 · 정량적 성과 요구를 지양하며, 영세 사회적기업을 배려해 요청 서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비공개로 모집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공개 모집 및 PT 심사를 시행해 전문성을 보완해 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유통 ERP 솔루션을 무상 지원한다. 'goodMD Lite'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판매와 재고 관리, 고객 및 매장 관리 등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샵링커 미니' 서비스가 추가돼 쇼핑몰 관련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들과 동반 성장한 2017년

신세계아이앤씨의 2017년은 사회적기업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의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해였다. 사회적기업과 소통하고 진흥원과 협업하며 열매를 맺었다. 사회적기업 지원 3년 차지만, 올해 처음으로 소셜벤처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그리고 임직원 자원봉사와 IT 진로체험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셜벤처와 함께 진행하면서 사회공헌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소셜벤처에게는 사업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소셜벤처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셈이다. 특히, 올해는 특성화고등학교 IT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IT기술로 사회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의 '해커톤' 대회를 진행했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민의 장만 열어준다면 그들이 사회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2018년은 실질적 지원 솔루션 찾는 해

신세계아이앤씨는 사회적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판매나 영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늘 아쉬워한다. 그러나 IT기업으로서의 역량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계사를 통한 협업 가능성을 살펴보는 등, 2018년에는 사회적기업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로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올 한 해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만큼, 내년에는 미래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육성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SK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혁신으로 더 넓은 사회적 생태계를 창출하다

SK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8개의 핵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약 4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판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관계사 사회공헌 파트너십',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 '행복 Alliance', '임팩트 투자', '사회성과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PC)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새로운 생각이 불러온 긍정적 순환의 법칙

SPC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후, 그 수치를 기반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Award유형의 프로그램이다. 첫 인센티브 지급 해인 2016년에는 44개의 기업에서 103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30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93개의 기업이 201억 원의 가치창출로 48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SPC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사업에 재투자해 성장 및 고용 증가를 이뤄냄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긍정적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세계최초로 2년제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 카이스트에 신설해 현재까지 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SK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면 학생은 졸업 후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시스템으로, 1회 졸업생인 정지연씨는 신진 미술작가 처우 개선에 힘쓰는 에이컴퍼니를 창업했다. 이밖에도 최근 화제가 된 천년누리전주제과를 지원해 대표 상품인 비빔빵의 월 매출 1억 달성에 기여했고, 행복도시락과 행복한학교에 힘을 보태기 위한 기업들의 모임이자 국내 최초의 사회공헌 네트워크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

이제 대기업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때

올해 SK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영리기업에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작년 SK가 회사미션에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목표를 추가했다면, 올해는 SK 주요 계열사의 정관에도 이 미션이 반영됐다. 계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경제적 가치와 함께 리포트하는 'Double Bottom Line'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개의 Bottom Line, 즉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두 가지 모두를 측정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활동은 SK가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며, 소비자들이 세대를 거쳐 기업이 하는 활동에 동참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준비이기도 하다.

새해에도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충실할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그룹 사회공헌의 주요 슬로건인 SK로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CSR의 혁신을 주도해 왔던 만큼, 새해에도 SK의 사회적 가치 성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비영리단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에 옮겨 사회 문제의 해결사로 활약해주길 응원한다.

LOTTE Mart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꿈나무에게 미래를' 나눔 문화 확산 대기업, 사회적기업, 꿈나무가 함께하는 드림팀

롯데마트는 2011년 10월부터 샤롯데 봉사단을 조직해 전국 128개 아동보육시설과 1:1 결연을 맺고 6,500명의 아이들과 함께 매월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같은 보육시설, 같은 아이들을 만나 정을 쌓은 시간이 무려 200,000시간에 달한다. 봉사단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페인, 친환경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유년기와 청소년기, 사회진출기로 아이들의 성장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음악재능 발굴프로젝트 '드림 캐쳐스'

보육시설에 있는 상당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퇴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롯데마트는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꿈나무 재능 발굴 사업을 기획했다. 결연을 맺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오디션을 통해 최종 12명을 선발했다. 음악교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소개한 사회적기업 서울오케스트라가 담당했다. 그리고 2017년 2월, 마침내 '드림 캐쳐스'가 태어났다.

사회적 가치가 몰고 온 감동의 쓰나미

드림 캐쳐스는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꿈나무들이 음악 안에서 자립과 감동을 전하는 작은 오케스트라단이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만나 협업을 통해 꿈나무 육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아이들은 1대1 레슨으로 실력을 키워 이제는 합주가 가능하게 됐고, 12월 28일에 첫 번째 연주회인 '드림 콘서트'를 KBS홀에서 개최한다. 롯데마트는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의 입점이나 판로 마련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의 유통사들인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LOHBS 등에서도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나무가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그 날까지

현행법상 만18세(고등학교 졸업)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 10명 중 4명이 미취업 상태로 퇴소하고, 취업 시에도 평균 월 소득이 123만 원 정도이며, 40%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아이들이 올바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전국 128개 아동보육시설의 아이들 한명 한명이 자신의 꿈을 찾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드림 캐쳐스의 단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300석 규모의 드림 콘서트를 1천석 규모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HYUNDAI

사회적기업과 함께 움직이는 세상 사회적경제를 위해 MOVE, MOVE, MOVE!

H-온드림

현대자동차그룹은 2017년 6대 무브(MOVE)의 사회공헌전략을 발표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지무브', 교통안전을 위한 '세이프무브',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무브',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림무브', 계열사의 역량을 연계한 '넥스트무브', 자원봉사 활동인 '해피무브' 전략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갈 성장 동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될성부른 나무 키우는 PICK ME UP

6대 무브 중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창업을 지원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드림무브(DREAM MOVE)'. 드림무브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소셜벤처 선발 · 육성 프로그램인 H-온드림오디션과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인 H-창의허브로 나뉜다. 이중 핵심인 H-온드림오디션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20억을 투자해 30개 선발팀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팀당 1억까지, 멘토링은 2년간 제공된다. 현재까지 150개 팀을 발굴 · 육성했으며, 827명의 고용 증진과 76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개조해 전동휠체어와 복지차를 제작하는 (주)이지무브를 2010년 설립했고 올해 매출 75억 원이 예상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또한 소셜벤처 점프와 협력해 H-점프스쿨 대학생 교육 봉사단을 운영하고, 프리즘과 도시재생(광주 청춘발산마을이 대표적 관광지로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H-온드림오디션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은 H-온드림오디션의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차별화된 지원 방식과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대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사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기존의 인큐베이팅 팀 외에 엑셀러레이팅 팀을 도입했다. 엑셀러레이팅은 어려운 시기(Death Valley)에 놓인 3~5년 차 사회적기업을 선발 ·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존 H-온드림오디션 1기에서 5기 펠로우 150개 팀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지원 체계(온드림 펠로우십)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와 연계해 소외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친구들(1기)을 들 수 있으며, 마리몬드(2기)의 제품 판매와 재고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두손컴퍼니(2기)가 물류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도 대표적인 온드림 펠로우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함께 향후 5년간 매년 30개 팀의 창업 팀을 선발해 총 150개의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18년은 새로운 5년을 위한 도약의 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더욱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경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사회혁신 기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쾌속 질주를 기대한다.

GS SHOP

기업 CSR. 사회적기업과 동행하기
구매가 곧 나눔이 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GS홈쇼핑은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인 무지개상자,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얼러브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도네이션 방송 '따뜻한 세상 만들기'다. 2010년부터 전파를 타고 있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지금까지 145회의 방송을 통해 3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GS SHOP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사회적기업 살리는 감동의 구성

GS홈쇼핑 내에서 사회적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한 금액도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상품 경쟁력 지원은 직접 상품을 개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과 패키지를 제작해 소비자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TV 방송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품은 세트화하는 등 판매 전략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V 방송 외에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특별 기획전도 있다.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을 응원하며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금액대별 혜택을 주는 것. 또 작년부터는 입점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진열하고 GS 유통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착한상품 페어'도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120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컨설팅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은 상품 생산 및 마케팅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충동구매? 착한구매!!

2017년 GS홈쇼핑은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채널을 도네이션 방송(매월 1회)뿐 아니라, 아이러브중소기업 방송(매일 오전 5시 30분~6시)까지 확대 편성하면서 방송 횟수 117회, 15억 원 매출(16년 23회, 6억 원 매출)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착한상품 페어를 통해 발굴된 5개 사회적기업 제품은 TV에 소개됐고, 5개 제품이 모바일을 통해 판매된 것도 올해의 주요한 실적이다. 특별히 올해는 도네이션 방송 전 미리 상품 체험 글을 블로그에 올려 사람들이 리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착한상품 서포터즈를 기획 · 운영하기도 했다.

2018년 도네이션 방송은 이미 매진 임박!

2017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지워시(1회용 수세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품 판매였다는 점. 그래서 2018년에는 더 다양한 제품군을 TV에 출연시켜 줄 작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창업 교육과 육성까지 활동 영역을 뻗어 나갈 계획이라고. 이뿐인가.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GS홈쇼핑 내 드림팀 멤버들, 박세일 PD, 오혜선 쇼핑호스트, 백성훈 쇼핑호스트, 김영규 과장, 오주연 대리, 주현우 MD, 조윤제 작가, 그리고 김은진 과장이 언제나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2018년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매진 열풍은 떼 놓은 당상이 아닐까?

LG전자 LG화학

사회적기업과 함께 기업하기
Life's Good with LG SOCIAL CAMPUS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LG소셜캠퍼스

LG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술로 더 나은 삶을 구현하는 '따뜻한 기술'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신뢰의 파트너십',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나눔'의 3가지 전략 아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사 능력만을 최고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보다 넓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신뢰의 파트너십'과 임직원은 물론 파트너와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LG 사회공헌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된 사회공헌

LG는 2011년 '친환경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내용은 우수하지만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노동조합의 생산성향상 컨설팅지원을 제공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LG전자와 LG화학에서 각각 자본을 출자해 매해 20억 원 규모로 무상 또는 무이자대출 형태로 지원했다. 반갑게도 무이자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상환을 한 금액으로는 다시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또, LG는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제조 분야 사회적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60%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 2014년부터는 'LG소셜펀드'라는 명칭으로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으로서 책임감 있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고려대학교 산학관에 'LG소셜캠퍼스'라는 공간(738평/2,439,662㎡)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입주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V3.0 출시

LG의 초창기 3년 동안은 금융지원과 컨설팅이 주를 이뤘고 그 후 2단계(역량지원) 3년간은 공간지원이 추가됐다. 그리고 3단계(협력단계)의 원년인 2017년부터는 금융지원과 공간지원을 넘어 옳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LG소셜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금융을 포함한 공간지원, 성장지원, 인재육성 등 다양한 맞춤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고도화하는 한 해였다.

사회적경제도 결국은 사람이다

2018년 LG전자와 LG화학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심층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가 보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앞으로 LG소셜캠퍼스가 훌륭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사회적경제의 상아탑 역할을 해주길 고대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글로벌 기업 사회공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장 **박란희**

기업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1935년 90년이었던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1975년 30년으로 줄었다가, 1995년엔 22년, 2015년에는 15년으로 급속히 단축됐다.(맥킨지 보고서) 국내 기업도 비슷하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곳 중 4곳은 20년 만에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건강하지 못해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기업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지나친 이윤 추구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의식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대두되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스위스 브뵈라는 작은 소도시의 네슬레(Nestlé)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네슬레는 연 매출이 110조 원 넘고, 브랜드만 2000가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다. 창립 150년을 맞은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비결을 알아보기 위한 방문이었다. 크리스티안 프루티거 네슬레 지속 가능 경영 총괄책임자(Global Head of Public Affairs · 부사장)는 놀랍게도 외부 NGO 출신이었다. 프루티거 부사장은 국제적십자(ICRC)를 비롯한 몇몇 NGO에서 20여 년 동안 인권 및 국제개발 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인물. 한국 기업이라면 다소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다.

이뿐 아니다. 2010년 도입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 '네스카페 플랜'을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지 NGO 프로그램인지 헷갈린다. 당시 커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중간상인은 이득을 보는 반면, 실제 생산자인 커피 농가의 수익성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네슬레는 묘목을 커피 농가에 제공하고 재배 기술을 가르쳤다. R&D 센터 7곳을 세워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했다. 그 결과, 네슬레와 거래하는 17만 농가의 수입이 두 배나 늘었다. 네슬레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은 5억 스위스프랑(6000억 원)에 달했다.

프루티거 부사장은 "소비와 환경을 생각한 장기적인 투자가 결국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코코아의 40%를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하는데, 그곳의 농부들이 가난해지고 자녀들이 일을 찾아 도시로 떠난다면 결국 농부들이 더 이상 코코아나무를 키우지 않게 될 것이다. 코코아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회사 제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네슬레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10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다."

네슬레는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창출한 개념인 CSV(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공유가치 창출)의 대표 성공모델로 꼽혀왔다. 정작 네슬레를 방문해보니, 이곳 사람들은 CSV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귀가 아프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이랬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사용량을 10년 전 대비 41%까지 줄였고, 2014년에는 외부 공급용수를 전혀 쓰지 않는 '제로 워터(0% Water)' 공장을 멕시코에서 운영하고 있다.

네슬레의 효자 상품인 '네스카페'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커피 가격이 폭락하자, 브라질 투자은행이 네슬레를 찾아와 브라질의 커피산업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에 네슬레는 브라질의 분유와 커피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사했고, 그 결과 1938년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인 네스카페가 탄생한다. 현재 네스카페는 매일 4억 7000만 컵의 커피를 판매할 정도로 성장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연말이 되면 일시적인 기부를 하거나 김장 · 연탄배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하는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연간 1억 4000만 유로(1300억 원)의

기부금을 운용하는 스웨덴 다국적 가구 기업인 이케아의 사회공헌 또한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은 사회공헌에도 비전과 미션, 전략 및 체계가 있는데,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주거환경 · 건강한 삶 · 양질의 교육 · 지속 가능한 가정 소득 확보 등 4가지 요소를 'Circle of Prosperity(풍요를 위한 선순환)'로 정의하고, 세상 모든 어린이의 더 나은 삶을 개선하는 걸 비전으로 한다.

소비와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이 많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벌인 '소프트토이 캠페인'은 이케아에서 부드러운 재질의 장난감이나 아동도서가 판매될 때마다 1유로씩 적립, 빈곤 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2014년 시작한 '난민을 위한 새빛캠페인'은 LED 전구나 조명이 판매될 때마다 이케아 재단이 1유로를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하고, 이 기금으로 난민 캠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8000만 개의 LED 전구를 판매했다.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한다. '2020년까지 10억 유로(1조 3300억 원)를 기후변화 방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노력 끝에 이케아 제품에 사용되는 목화 100%와 목재 61%는 '지속 가능한 공급처'로부터 받고, 제품을 포장할 때 사용되던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 가능한 섬유 기반 자재로 바꿨다. 데레야 벨링스 지속 가능 경영 아태 총괄은 "우리는 누가 사회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는지 '임팩트'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글로벌 사회공헌 사례를 인터뷰할 때마다 이들은 사회공헌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을 파트너 NGO와 함께 진행한다. 이케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한 해 동안 100여 명의 이케아 임직원을 파트너 NGO에 보내 재단 사업을 견학하고, 그 경험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는 '아이 위트니스(I Witness)'라는 프로그램까지 있다. 이케아 사업을 직접 보고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파트너십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 이하 아멕스) 재단이었다. 아멕스는 사회공헌과 마케팅을 연계한 캠페인의 효시를 만든 적이 있다. 1983년 고객들이 아멕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1센트를, 신규 가입 1건당 1달러를 '자유의 여신상' 보수(補修) 기금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캠페인 기간 동안 무려 170만 달러(약 18억 원)를 모금했다. 아멕스 카드 사용도 덩달아 27% 증가했고, 신규 발급 건수도 10% 늘었다.

이후 아멕스는 3년간 카드 고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천 개의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받았고, 고객이 직접 실행해보도록 NGO와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아멕스는 비영리단체가 성장해야 사회문제 해결이 더 쉽다는 걸 깨닫고, 프로그램을 바꾸게 된다. 2007년부터 차세대 비영리 리더십 아카데미를 열었다. 비영리 내부에 리더십 프로그램이 안착할 때까지 비용 · 컨설팅 · 인력 파견을 100% 지원하기도 하고, 비영리 리더급 실무자를 선발해 5일 동안 워크숍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워크숍 교육은 아멕스 CEO · 이사진 · 임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들다는 글로벌 기업들은 왜 이렇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걸까. 티머시 제이 매클리몬(Timothy J. Mcclimon) 아멕스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주주, 직원, 고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챙겨야 한다. 이젠 지역사회의 지지 없인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도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최고경영진들이라면 특히 '소셜 리터러시(Social Literacy)'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冬 이 겨울, 동광어패럴의 따스한 온정을 입는다

동광어패럴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층 (갈현동) t.02-388-1411 dkapparel.modoo.at

겨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도톰한 스웨터에 손이 간다. 그 옛날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떠주신 스웨터 한 벌이면 그 해 겨울은 따뜻했다. 세월이 흘러 스웨터를 직접 뜨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값싼 시대가 오고, 섬유산업 특히 편직(뜨개질하듯이 원단을 짜는 일)의 류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싱은 돌아가고 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그 안에 어머니의 손정이 묻어 있는 옷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매서운 추위로부터 지켜준다.

`; ÊXéÑ´% kIX

(주)동광어패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의 선진화에 역점을 둔 의류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편직의류산업의 명맥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올린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한,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채용해 기술전수 교육 후 지역 섬유업계에 취직을 알선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자립 생활 유도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동광어패럴의 제품군은 정복, 작업복, 장갑, 양말, 앞치마, 점퍼, 제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겨울에는 역시 방한복, 스웨터 및 카디건, 목도리 등이 인기상품이다. 동광의 모든 제품은 고객 요청에 따른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û; I — n·à 2ï8 I¯>× Ý¸

2011년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거쳐 2014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동광어패럴 배충일 대표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서울사회 복지대상'에서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소외계층,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수상하는 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은 배충일 대표의 헌신적인 이웃사랑의 자그마한 증표이다. "꾸준한 봉사와 지원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배충일 대표의 약속. 동장군의 심술 속에서도 이 겨울이 따뜻할 수 있는 이유이다.

동광어패럴의 경영철학

책임경영 | 제품 선도성을 추구하고 고객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책임경영

서비스경영 | 고객 및 근로취약계층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서비스경영

인간 중심경영 | 열린 사고와 창의력으로 전 종사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 인간 중심경영 수행

和 화목으로 만드는 겨울 속의 봄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2 두정메트로존 (성정동) t. 041-564-0350 www.ecare.or.kr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7년은 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정책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였다. 때마침 충남 천안시에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수요가 있었고, 이에 천안지역자활센터는 산모, 노인, 장애인 영역의 돌봄사회서비스사업을 지정받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용자와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2008년 1월, 직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우리사주 형태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이하 천안돌봄)를 개소했고, 2010년 7월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천안돌봄은 장기요양 방문 및 방문목욕, 장애인 활동 보조, 산후조리, 병원환자 간병, 노인 돌봄, 취약계층 돌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 최대 규모의 공익기업체로 성장했다.

,¡…•7 ›ÿ Ò — ÑÉŽ%éÑ ,

천안돌봄은 현재 약 6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 30가구의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힘을 보태는 등, 사회공헌도 꼼꼼히 챙긴다. 올바른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직원 복지가 필수라는 신념 아래, 노무 컨설팅을 비롯한 우수직원 포상 및 성과급 지급, 직원 야유회와 경조회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ÑÉ •2S ‰À² ´>× , D 7

천안돌봄의 이용자와 종사자는 천여 명.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 모두는 이 지역에서 함께 살을 부비며 함께 늙어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천안돌봄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2018년이 더욱 기대된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의 사랑으로 인생의 봄이 돌아온다.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만의 특별한 돌봄

직원 간의 민주적인 소통구조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경조회, 경영회의, 월례회의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

건강한 일자리 창출 | 근로자 340명, 간병회원 70명

종합돌봄시스템 구축 | 돌봄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재가 및 병원서비스, 복지용구, 보장구, 보조기기 사업 시행

착한 쇼핑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e-store 36.5는 365일 언제나 꿀잼!

성탄 케이크(생크림, 고구마, 쌀무스)

15,000원~16,000원
씨튼베이커리
www.setonshop.or.kr 062-973-1151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회, 각종 기념일 등의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다. 그렇다고 흔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케이크를 선물하기엔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연말연시인 만큼 좀 더 특별한 케이크를 찾아보자. 씨튼베이커리는 우리 밀과 쌀, 무항생제 계란, 유기농 설탕, 올리브오일 등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100% 핸드메이드 케이크를 만들고 있으며, HACCP 업체로 지정돼 원재료 관리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특히 쌀무스케이크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품으로 밀가루가 부담스러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 좋다. 자 이제, 의미 있는 케이크와 달콤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일만 남았다. 케이크 위 촛불을 조명 삼아 인생샷도 건져보고, 촛불 끄기 전 두 손 모아 기도하자. 아듀 2017! 웰컴 2018!!

떡국떡

선물용 세트 20,000원(500g x 4종) /
일반 21,000원(3kg)
삼성떡프린스
www.ddprince.co.kr 02-823-2230

케이크만 챙기면 떡이 서운하다. 자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식구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 떡국 한 그릇 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지 않았던가. 나이 먹는 건 싫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에 동감하게 하는 오색 떡국떡으로 2018년을 맞이해 보자. 삼성떡프린스는 당일 생산 및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100% 국내산 천연재료로 떡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판매수익금으로 근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립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일떡이조! 흰색 떡국떡, 오색 떡국떡, 떡볶이떡, 조랭이떡으로 구성된 떡국떡 세트는 개별포장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적극 추천한다. 떡국떡 외에도 경단, 설기, 꿀떡, 떡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떡을 판매하고 있으니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맛있는 떡국을 먹으면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다. 얘 이름은 떡국떡♩ 거꾸로 해도 떡국떡 ♬

드라이플라워 꽃다발

35,000원~50,000원 (택배비 별도)
(주)엔젤플라워
www.엔젤플라워.com 054-843-8788

사람이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낭만이 필요하나니. 낭만의 화신 꽃으로 이 겨울의 사랑 온도를 올려보자. 꽃을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이유는 아름다움과 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민고민하며 고른 꽃을 상하지 않게 온전히 전해주고자 하는 상대방의 정성과 마음 때문이 아닐까? 엔젤플라워는 그 마음 그대로 산지 직송의 저렴한 가격에 신선함을 상품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플라워샵이다. 매장을 직접 둘러보고 구매하는 것은 물론 전화로 문의하면 희망 가격대로 상품을 구성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해준다. 드라이플라워는 3~5년간 보관 가능하므로 내 마음을 오래오래 느낄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다. 요즘 화훼농가가 어렵다고 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검소한 꽃 선물은 부정청탁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일꽃이조! 이번 연말연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꽃으로 전달하는 거로.

"환경, 건강, 보람, 재미까지 챙기는 실속만점 e-store 36.5에서
연말연시 선물로 안성맞춤인 제품들을 득템했다."

www.e-store365.or.kr

천연립밤

2,000원(용량 5ml)
(사)글로벌투게더음성
www.e-um.kr 043-883-5861

긴긴 겨울밤엔 군밤, 거칠어진 입술엔 립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입술 건강을 천연립밤으로 지켜주자.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판매하는 천연립밤에는 자초인퓨즈드오일(호호바오일에 자초뿌리를 우려낸 것)과 카렌듈라인퓨즈드오일(올리브오일에 카렌듈라 꽃잎을 우려낸 것)이 함유되어 트고 갈라진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주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화학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아 자극이 적고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 제품 사용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천연립밤을 득템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 종류는 딸기향, 사과향, 레몬향 3가지이며 스틱형과 원통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립밤은 가격부담이 적기 때문에 데면데면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더없이 좋을 듯싶다.

2018년도 달력 맞춤제작

10,000원
베어베터컴퍼니
www.bearbetter.net 02-6267-6919

우리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감을 아쉬워하면서도 새해 달력을 보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각오를 다진다. 휴대폰이나 SNS의 캘린더 기능을 이용하는 스마트함도 좋지만, 탁상달력에 직접 손 글씨로 각종 기념일과 휴가 계획을 체크하며 차근차근 새해를 준비하는 아날로그 감성도 놓치지 말자. 베어베터는 'Bear' 곰을 닮은 발달장애인이 'Better'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Bear makes the world better'를 줄인 말이다. 베어베터의 달력은 매년 새로운 콘셉트로 제작되는데 2018년은 '베어베터의 업무'를 주제로 장애사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비록 느리지만 특별하고 행복한 장애사원들의 업무를 달력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새해 달력을 선물한다면 365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마스카드, 연하장

4,500원
종이정원
www.cooponre.com 063-282-0028

한번 읽고 고이 모셔두는 카드와 연하장은 이제 그만~ 종이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아트를 선물해보자. 종이정원(Paper Garden)에서 만든 각종 카드는 사무실 등에서 파쇄기로 잘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종이를 한지 제작방식과 씨앗 수경재배 기술로 되살려 재탄생시킨 폐종이 업사이클링 친환경 문화수공예품이다. 접시나 화분 위에 놓고 물을 듬뿍 적셔 마르지 않게 유지하면 2~7일 후 카드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싹이 3~4cm 자라난 후 흙으로 종이와 함께 옮기면 뿌리를 내리면서 더 크게 자라난다고 한다. 우리의 소중한 지구를 위하는 재활용 친환경 제품으로 마음을 전하는 당신의 선택은 수퍼 그뤠잇! 우리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일동도 독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연하장을 띄운다. "2018년에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무지에 피어난 사회적경제의 꽃, 만개하다

Store 36.5 노원점

노원점의 탄생 비화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아름다운 상생과 화합의 드라마. 그렇다면 드라마의 결말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결말이다.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의 상생은 결국 소비자가 행복할 때 그 의미를 얻게 되니까. 상생의 방점은 소비자만이 찍을 수 있다.
노원점에서는 아무도(No One) 소비자를 대신할 수 없다.
노원점은 소비자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버려진 공간, 상생의 온기로 채워지다

노원역 4번 출구, 롯데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노원점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빈 공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방치된 공간이었다. 노원구청 측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꽤 넓은 땅인데 왜 저렇게 버려져 있을까?' 땅 주인도 궁금했다. 당연히 백화점 또는 지하철(서울교통공사) 소유라고 생각했건만 반전이 일어났다. 서류란 서류는 모조리 뒤진 결과, 이 땅이 노원구청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다. 황무지에서 노다지를 캐듯 금싸라기 땅을 발견한 구청은 고민 끝에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때마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민관 합작의 협력모델을 기획하고 있었고, 지역 민간단체인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현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판로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일이 되려니 술술 풀려나갔다. 구청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진흥원은 설비 비용을, 일촌나눔하우징(당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인테리어 설계를,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는 운영을 전담, 여기에 지역의 대표 기업인 롯데백화점이 홍보 및 행사 장소 지원 등의 힘을 보태면서 역사적인 4자 협약이 이뤄진다. 바로 그 4자 협약을 통해 2012년 12월 26일 스토어 36.5 노원점은 개소를 맞이했다.

노원점, 소비자와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다

노원점은 여러 사람의 바람대로 노원구민들에게 사회적기업 제품을 알리고,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36.5 카페는 단골들을 확보하며 성업 중이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노원점의 관심 영역은 단지 소속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6월에 롯데백화점과 함께 개최한 '남도직거래장터'가 좋은 예다. 농촌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이름처럼 서울 소비자들과 지방의 품질 좋은 특산물을 제대로 연결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다각적인 상생의 노력을 인정받아 노원점은 최근 진흥원으로부터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사업 유통채널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대표기업과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모델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소비자, 사회적기업 제품의 가치에 눈 뜨다

노원점에서는 요즘 대세인 에코백을 비롯해 꿀과 차 등의 건강식품이 효자상품들이다. 특히 자개공예품과 같은 비교적 고가의 상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에도 소비자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구매할 뿐만 아니라, 재구매율도 제법 높다고 한다. 노원점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코너를 마련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통기한이 긴 상품들을 취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냉장시설을 구비해 다양한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더욱 풍성한 상생의 기운이 넘쳐나게 될 노원점의 2018년을 기대해 본다.

상생의 가치 키워갈 인재들 발굴하고파

백 미 선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백미선 이사장은 2005년부터 도시락 서비스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랑의 손맛'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노원사회적경제연대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노원점의 총괄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노원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요. 청년이나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을 훈련시키고 기업에 파견해 경험을 쌓게 하는 일이죠. 그런 분들이 향후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면 여기 노원점을 위해서도 분명히 발전적인 일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스토어36.5 노원점
전화번호 : 02-3391-3650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노원점

NEWS

1 '2017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지난 11월 13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대회로써, 그동안 공부의 신, 시지온, 딜라이트 등 사회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가들을 발굴하였다. 올해 아홉 번째로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4개 부문 총 901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선과 권역대회를 거쳐 66팀이 전국대회에 진출하였다. 전국대회 입상자 중 창업의지가 있는 지원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창업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임 비상임이사 임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14일 2020년 12월 13일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신임 비상임이사 10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진흥원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중은 총 14명 중 7명으로 50%에 이르게 됐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표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진흥원 비상임 이사진은 자활, 시민사회,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꾸려져 진흥원 이사회의 사회적경제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현장과 진흥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는 드물게 청년이사(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가 포함돼 향후 사회적경제 분야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명단

¿ z		× Ø Â Ò$	± ƒñ
김기태	5	Ž à´ 2'äË³× ×b	à´Ž%xƒ•Ë %D •<$ b à´>:<ª¹%y´ ®- b
박인자	?	‡Iç 2Ëä% %b	Ó±‡Iç¤ IŽb ˜ ƒ,ÑKÐÃ %b
안혜경	?	Ž ', Ž%²: Ã Ã b	y´W Ý¸ à´, Ž%x 2'ä IŽb 'ŸÉ& Ž%xÝ¸-¿$ % $
유성희	?	à´:8$"Ëä% Ž–hb	Š ¢2 Ž%xÝ¸ -¿y™$ % $ Ý&d• 2'ä•<,D$ % $
윤형근	5	à"?Ëä hšš–IŽ	à"?¿i K¤ š–IŽ },—"?Ë³× ×b
이미영	?	•¯_èIXÏ;‡ ´IŽ	Ž%x 2'ä Ñ³C8 IŽb ² Ž%xÝ¸ D% •2 ´
이인재	5	à(ß® Kb²: d ß— ®û	Ž%xÝ¸ à(ÒÞ ¾¯ :šP ´ ² º³ Ž%xÝ¸ D% %b
이현민	5	y 2Ž%ƒ•Ë %D •<$ b	y ª¯c™äÑ Ã b ‰&¹Êy× ×b
임경지	?	¹ó‰I,äá $ b	¹ó‰I± 2'ä IŽ ² & R™•<$ % •2$ b
임윤옥	?	à´È¿¢2W% šP ´	LÈ¿¢2W% Ž–´b È¿ •<W™$
권승화	5	&:àÔ %b	&:àÔ ´IŽ àÔ%…èK 5"4 b

※당연직 이사 제외

3 사회적기업 해외연수단, 북유럽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장을 누비다

지난 10월 22일~29일(6박 8일간), 사회적기업 해외연수단(총 10명)이 스웨덴 · 핀란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90%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회적기업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탐방하고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탈 방문 및 모의투자 피칭까지, 밀도 있는 학습 ·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북유럽의 사회적경제 현장은 한국 사회적기업가들에게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남겼을까. 직접 다녀온 연수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짝 들여다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게시된 '2017년 사회적기업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수자 어반소사이어티 양재찬 대표의 이야기

2017년 사회적기업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해외연수는 사회적기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난 4년의 시간들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현재 우리 팀의 수준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앞선 사회문화적 환경을 직접 접해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했던 연수였지만, 잘 준비된 기획에 따라 사전 진행되었던 방문기관 리서치과정과 세심하게 디자인된 연수일정, 현지기관방문 후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연수단 내부 그룹회의 등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북유럽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임팩트 비즈니스 협업사례이다. 잘 짜여진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의 파워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영마인드이다. 초기에 집중했던 소셜미션과 이와 관련한 시장 안에서 치열하게 도전하려고 한다는 점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들만의 임팩트 비즈니스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졌다. 세 번째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측면의 계획과 전략수립, 실행과 보완, 리스크 관리 등이 치밀하게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9개의 사회적기업 중 4개 회사(베터쉘터, 솔바텐, 피푸플, 미푸코)가 UN에서 잡은 기준인 기후변화문제와 난민, 불평등 교육 등 글로벌한 문제해결을 소셜미션으로 인식하고 국가를 초월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17년 사회적기업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중 발췌〉

4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7년 12월 20일(수)부터 2018년 1월 19일(금)까지 한 달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팀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창업 공간과 자금, 멘토링,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다와 테스트웍스 등의 기업이 육성된 바 있다. 특히, 선정된 창업팀은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We-star 발굴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대회', '소셜캠퍼스 온' 입주 등의 기회도 함께 주어질 예정이다. 오광성 진흥원장은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Q&A 모든 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Q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참가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 준비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창업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십니다. 단, 3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원이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창업 준비팀이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를 뜻하고 초기 창업팀이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뜻합니다.

신청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직을 사임하거나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선정심사는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 대면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창업 과정에 필요한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창업공간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기본적인 사무집기가 제공됩니다.
창업자금 :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해드립니다. 창업자금으로는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간접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멘 토 링 : 담당 멘토를 통해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시 상담과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창업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입주 가능한 소셜캠퍼스 온을 조성하였습니다. ('17년 기준 서울, 부산, 전북 3개소 운영)

Q 어떻게 지원하나요?

A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을 통해 접수
오프라인 신청은?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모집 공고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 17.12.22(금)~18.01.19(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² hKLhƒÝ	Ž ÖÖÃ	² `ù& J²³ •æ ý	
	Ž à´Ž%xÝ¸ º" D%••Ž¸ñ	² `ù& ² ™³ û•ý Ž%xƒ• C8Ã •	
	d ã LÞ×dñ	² `ù& ¨L³ ~22ý ç¾; •	
	Ž%Ë 7ï Ž ã EX×Áš	² `ù& ¿ ³ ‰•ý Šð ß® 'ß™ • -(×Í¬Œ	
	Ž Jƒ•Ë³×	KLŸÉ& i³ ƒKý •	
	Ž%x 2'ä ŽÈ—Áš	ƒÝ(û & b‰³ ƒû ý ãá •	
² hKLhƒÝ *5	À IPu Ž%x 2'ä	² `ù& ³ý³ ((?ý á	
² hKLhƒÝ Öýå	Ž% ÑèK ÌRaÃdñ	² `ù& º³ C…ý á	
J h yh}R	Ž J (Ž%xƒ•Ñ Ã	J (±& wý #	
	Ž%x 2'ä ÁšEŽ	yŸÉ& º³ \ý ãá •	
	Ž }iŽ%ƒ•Ž_ ü	}Ri(‡'& (9v ýLñý ýLñ •— ß	
	Ž } &¹dñ	}R (R±& \ ³ \ ý •	
³hƒ	Ž •2ScWKË³×	³ŸÉ& º³ ¿ý •	
	³ ß® 'ß ññ	ƒš (ƒ'& ÓÝ; ³ ý ³ ß® ƒ'¬Œ ¤z ƒ ß ™	
'h 'hƒi	'>:< ß® 'ß ññ	'ŸÉ& Ø•³ ß* ý 'ß ñ™	
	Ž Ž%xÝ¸Ë³	'ŸÉ& Ø•³ º" ý •	
	Ž%x 2'ä 'Ž%xƒ• Ñ Ã	'ŸÉ& º³ (Ý á •	
	}ADƒ• Ž%x 2'ä	ƒši(9 & ¿'³ ñ•ý	
Ÿ±hyÄh•±	Ž%x 2'ä "?	Ÿ±ŸÉ& ²³ š–º"ý •	
	Ÿ± ß® 'ß ññ	Ÿ±ŸÉ& i³ , ý Ÿ± ß® K¿™ • Ž%xÝ¸Ž¸ñ	
	Ž KbŽ_ ü š¤a–	yÄi(–‰µ –ñ; ß á •	
	yÄ (ƒ•>šÓ\	yÄ (y±& Ó³ y—•ý • Ž%xƒ•q	
	•±Ž%xƒ•Ž_ ü	•±`ùW–(•±& º"ý •	
È¿	Ž È¿IEX×L—·Ð	² `ù& C¨³ ¿·'ý •	
È'c '?	Ž à´CIüýüèc_ (a×'ä	² `ù& ² ™³ >Lý Ž'=I •	
(&d¤	Ž Œ _ƒÔÝÿË³	}R (R±& šü³ ®²ý •	
cWKh•'	d 'cWKÃ	'ŸÉ& ç ³ ÈÈý ç Ýÿ®- •	

œÀ IPu Ž%x 2'ä Ž% ÑèK ÌRaÃdñ7 ÂÉ— ` ýï

응답하라! 우리 모두의 유년시절

〈나만 없는 집〉이라 쓰고 〈내가 있어 행복 한 집〉이라 읽는다

자다가도 불현듯 이불킥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도대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은 기억들이 있다. 그 옛날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지만, 자꾸 곱씹어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얼굴에 화색이 돌기도 한다. 그래, 그게 '나'였으니까. 김현정 감독의 2017년 단편영화 〈나만 없는 집〉은 한 소녀의 성장기를 통해 가족애와 지난 추억,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환한다. 너무 놀라지 말라. 〈나만 없는 집〉에 '나' 있다.

나만 없는 집? 상 복 터진 집!

김현정 감독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7년 관객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최고의 영화를 꼽기에 한창이다. 그렇다면 2017년 최고의 단편영화는? 여러 작품이 물망에 오르겠지만 김현정 감독의 〈나만 없는 집〉이 꽤 많은 득표를 얻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작품은 올 한 해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제16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대상을 비롯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부산씨네필어워드), 대구단편영화제(애플시네마 대상), 고양스마트영화제(기술상),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대상),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19+ 대상), 서울독립영화제(관객상) 등을 휩쓸었다. 거의 신드롬 수준이다. 특히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단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수상할 수 있는 대상을 2012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여기에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부문' 최우수 작품상과 주연배우 김민서의 '심사위원 특별상 연기 부문' 공동수상까지 보태 3관왕에 올랐다. 보통 단편영화제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임팩트를 주는 실험성 강한 장르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나만 없는 집〉은 가족 드라마다. 이 작품이 2017년 단편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놉시스...열한 살 소녀의 성장통

1998년 봄 대구가 배경인 〈나만 없는 집〉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세영(김민서 분)이 넉넉지 못한 가정의 둘째 딸로 자라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세영은 언제나 혼자 밥을 먹는다. 고된 맞벌이로 항상 집에 늦게 돌아오시는 부모님, 두 살 위인 언니 선영(박지후 분)은 자신과 놀아주기는커녕 매사 무시한다. 세영은 몰래 언니 책상을 들여다보거나 언니의 걸스카우트 단복을 꺼내 입어보면서 능숙하게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러던 어느 날 세영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학교에서 자신의 로망 걸스카우트 신청서를 나눠줬던 것. 친구들 앞에서 신청서에 호기롭게 서명하며 허세를 부리는 세영.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한집에 무슨 둘씩이나 걸스카우트에 다니냐며 반대한다. 휴일에 잠만 자는 아빠를 졸라보지만 허사다. 어쩔 수 없이 혼자 힘으로 걸스카우트를 쟁취하기로 결심한 세영은 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돼지저금통 배를 가르고, 장롱 밑을 막대기로 훑어 내거나 세탁기 속 바지 주머니를 뒤져 동전들을 모으더니, 심지어 준비물 살 돈까지 아낀다. 그러나 초4 학생에게 몇만 원에 달하는 회비는 벅찼다. 결국, 언니의 단복을 몰래 입고 걸스카우트 모임에 나간다. 세영은 아이들과 노래하고 율동하며 비로소 환하게 웃을 수 있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없어진 단복 때문에 분노한 언니와 자매 전쟁을 치르고 의기소침해진 세영은 엄마가 야근하시는 공장에 찾아간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설움의 눈물을 터뜨린다. "왜 난 걸스카우트 신청 안 해줬어? 왜 난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세영은 한바탕 성장통을 겪는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가족 이야기의 힘

김현정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나만 없는 집〉은 관객에게 '옛날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비단 감독의 세대인 30대 여성에게만 국한된 옛날 생각은 아닐 거다. 맏이의 기득권(?)에 항상 불만을 품었던 동생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고, 가정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야기를 70년대나 80년대 또는 지금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다. 작품이 품고 있는 가족 이야기는 여전한 현재진행형이니까 말이다.

김현정 감독은 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객분들이 모두 '내 이야기'라고 하셔서 무척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이 공감해주셨고, 다들 외로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제 영화 같지 않고, 저만 느낀 줄 알았던 감정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우리에게는 세상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소소한 일상들. 그 지나간 일상의 힘이 추억이란 이름의 거대한 물결로 몰려와 관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지 않았을까.

"영화를 만들면서 별 탈 없이 완성되기를 바랐고 감히 수상을 예상하진 않았다"는 김현정 감독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2015년 작 〈은하비디오〉, 〈나만 없는 집〉에 이어지는 세 번째 단편영화 촬영에 내년 봄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내후년에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주로 여성의 소외감을 다뤄왔던 감독의 관심사가 새 작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기대된다.

착한 반전은 언제나 옳다

〈나만 없는 집〉은 잔잔한 드라마지만 나름의 반전을 지니고 있다. 세영이 언니와 싸우고 엄마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결국 걸스카우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세영의 말에서 관객은 착한 반전이 가져다주는 코끝 찡한 감동을 느낀다. 맏딸보다 속 깊은 둘째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묶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엄마가 말한다.

"우리 세영이 언제 이리 컸노?"

우리는 그렇게 컸다. 〈나만 없는 집〉은 우리 모두의 성장 드라마다.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지은이 박철
출판사 집문당
가 격 15,000원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은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마케팅에 있어 비용과 노하우의 문제에 직면한 소기업, 특히 소규모 사회적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특징과 문제점,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특성과 활용 방안을 정리했고, 3장에서는 스타벅스, 블랙스미스, 대한항공, 코카콜라 등 대기업의 사례는 물론 꽃집아재, 마마님청국장, 시골 야생화꽃차 등 영세기업의 SNS 마케팅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저자가 58개 사회적기업을 직접 방문해 소셜미디어 활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기술했으며, 5장에서는 5개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직접 개발하고 분석했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기업 마케팅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주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차원에서의 선결과제와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저자 박철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소비문화학회장, 기독경영연구원장,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재)중앙자활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폭넓은 경험과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 책을 학술서나 연구집이 아닌, 기업들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실용서로 만들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소규모 사회적기업들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 공정여행

호텔 대신 랏지네 집에서 머물러요

지은이 주느비에브 클라스트르
그 림 뤼실 플라생
역 자 허보미
출판사 내인생의책
가 격 15,000원

2017년 예능 프로그램 대세는 먹방도 쿡방도 아닌 여방(여행 소재 방송)이었다. 다양한 형식의 여행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종 여행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아쉽게도 공정여행까지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여행이란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현지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여행자와 현지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여행이다. 이 책은 삽화를 활용해 초보자도 공정여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행준비부터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여행의 감흥을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세계지도와 유명 유적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아이 교육에도 쏠쏠하다. 또한, 나의 첫 번째 여행 서적으로 소장할 만한 착한 여행책이다.

인생학교 일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

지은이 로먼 크르즈나릭
역 자 정지현
출판사 쌤앤파커스
가 격 12,000원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일과 직장은 어려운 문제다. 단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일거리가 아닌,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인생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 앞에 놓인 이 골치 아픈 화두를 하나하나 풀어간다. 저자는 일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며, 나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몰입을 통해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아니타 로딕'이 설립한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어떻게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기술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좋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도전!

모집기간
2017.12.22.(금)-2018.01.19.(금)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지원내용
창업공간 |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창업자금 | 최소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멘 토 링 |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임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 지원
자원연계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지원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 제공
(17년 기준 서울, 부산, 전북 3개소 조성)

신청자격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서,
창업 준비팀·초기 창업팀·재도전 창업팀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www.seis.or.kr
오프라인 신청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ocialenterprise.or.kr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최종선정